

바른정당 추가 탈당에 통합 대열 '난기류'

김세연·남경필 이탈에 국민의당 내부 논란 격화

반대파 "빨색 통합 멈춰야"... 安, 중립파 설득 '울인'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이 9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 이탈을 공식 선언하면서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통합반대파는 한때 33석에 달했던 바른정당 의석수가 세 차례 탈당을 거치면서 10석까지 줄어들자 "합당을 강행하면 오히려 의석수가 현재 40석보다 줄어드는 빨색통합"이 될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 측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맞서 통합파인 안 대표 측에서는 "의석수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중도개혁정당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응수하면서 당내 중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통합 동력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바른정당이 일부 세력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이날 박주선 국회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이른바 당내 '중립파'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 행보에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안 대표가 중립파 의원들의 집을 찾아가는 등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 있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예정보다 다소 늦추고 있는 것도, 최대한 중립파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바른정당이 소위 '박·정·전'(박지현 정동영 전정배 의원) 배제를 요구한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통합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대표는 전날 밤에 박주선 부의장의 분당 자택을 방문, 통합 동참을 요청했으나 박 부의장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파는 바른정당이 일부 세력의 추가 탈당으로 '이상기류'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흔들림 없이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면, 통합반대파는 "정체성이 맞지 않는 정당끼리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의 최경환 대변인은 "통합 브레임을 출발은 시켰는데, 파트너가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 모양새"라며 "빨리 버스를 멈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능하고 옳지 않은 통합"이라고 허송세월하고 "유승민 꽃놀이패"에

안철수 대표의 언발"이라며 "오늘도 알곡은 떠난다. 다 떠나고 쪽정이와 쪽정이가 통합한 알곡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통합 저지가 목표다. 그래도 통합을 원하면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하면 된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 등 여러분을 위해서 개혁신당 창당 작당도 병행해 선거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정배 전 대표 역시 YTN 라디오에 출연, "유승민 대표가 안 대표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결국 안 대표가 햇볕 정책을 버리고 유 대표의 냉전적 안보관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세연 의원 등의 자유한국당 복당을 두고는 "바른정당은 속된 말로 한국당의 아바타다. 바른정당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결국 유 대표는 1단계로 국민의당, 2단계로 한국당과 통합해 보수통합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현기자 jkpark@kwangju.co.kr

개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초미 관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박지현 "당 지키기 18명 참여"... 중립파대 선택파라 '희비'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막으려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창당을 검토 중인 이른바 '개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합당을 둘러싼 여러 난제로 안철수 대표 등 통합파의 동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합당에 정치생명을 건 안 대표가 당 안팎의 반발을 누르며 합당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합반대파의 창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관영 사무총장 역시 9일 통화에서 "여러 난제가 있지만 안 대표로서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빈손 회교는 불가능하다. (안 대표)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 하라 말인가"라며 합당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관심은 이제 반대파 의원들이 정치일정에 따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이는 개혁신당이 원내 20석을 확보, 교섭단체를 꾸려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다.

우선 통합 찬성파는 개혁신당으로 가는 의원 수가 많아야 10석 안팎일 것으로 전망한다. 찬성파 이인우 의원의 표현대로 "뚜렷한 노선도, 정체성도 없이 통합 반대를 이유로 정당을 만든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합류하겠느냐"는 논리다.

반면 반대파 측은 합당을 둘러싼 여론이 따지고, 양당의 정체성 차이 등 여러 가지가 불거지는 난제들로 인해 개혁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 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혁신당이 출범할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박지현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반대파 측은 신당창당 카드를 꺼내든 이후 수차례 공개적으로 의원 20명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통합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만 18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파 모임에 든 의원 가운데는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수는 결국 중립파대에 위치한 중재파 의원들의 선택이 될 것이라 지적이다.

현재 양측 갈등 중재에 나선 김동철·손금주·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중재파 내지 중립파대 의원의 선택에 따라 입당 유요 중인 의원들의 개혁신당 합류 여부도 결정되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반대파 측 관계자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중재에 나선 의원들 모두 호남의원들만 만큼 통합이 결정되면 결국 개혁신당과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교섭단체가 가능한지 묻지 말고 보수가합당(통합당)이 의원수 20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라. 안 대표 측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與 조세개혁 '시동'

공정과세 실현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며 조세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당 공정과세 TF에 더해 대통령 직속으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를 맡고,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중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조세개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TF 위원들은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별 공정회를 통해 국민 여론도 수렴한다.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경제·사회 정책에서 세계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우리는 동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시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면담을 마친 후 어깨동무를 하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 칼둔 "양국 형제국가로 발전 최선"

4시간여 회동... 국방·에너지 협력강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UAE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를 아랍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 관계로 그대를 발전시켜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찾아온 칼둔 특사를 만나 "임종석 특사가 UAE를 방문했고, 또 청장님이 UAE 특사로 2018년도 첫 손님으로 한국 방문했기에 양

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칼둔 특사는 "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방향으로 더 깊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칼둔 특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임 실장은

"UAE와의 관계는 저희가 중동에서 맺고 있는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관계를 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도 회동 후 "앞으로도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30분가량 이어졌으며 양국은 국방,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저임금 편승 부당노동 업정대처"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제... "물가 안정 시기 놓치지 말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건비 상승의 전가 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절히 대처해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장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는 고용주가 있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주고,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쟁부담이 늘 것을 정부도 잘 알지만,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고 가파른 소득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정부 시책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장도 생기는 지점이 몹시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넌다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